

# 간호입문교육 콘텐츠가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김자숙\* · 한수정\*\* · 한승욱\*\*\* · 김수현\*\*\*\*

The Effects of Nursing Introduction Cont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of first year students

Ja-Sook Kim\* · Su-Jeong Han\*\* · Seung-Wook Han\*\*\* · Su-Hyun Kim\*\*\*\*

##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위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과목으로서 적용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K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12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방법은 단일군 사후 사전 실험설계 연구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 $t=2.36, p=.002$ )과 자기효능감( $t=2.92, p=.004$ )을 상승시켜 주었고,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r=.609, p<.001$ )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이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CT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간호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언한다.

##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a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for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contents. The effects of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for first year nursing students is to identify a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The study used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and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5, March to 26, March, 2012. The participants were 129 students of nursing in K university. The data were obtained via questionnaires survey before and after taking the cours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using SPSS 15. As a result in analyzing the effect of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first year nursing students,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was appeared to influence the self-efficacy. The scores of self-efficacy( $t=2.36, p=.002$ )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he education. Also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t=2.92, p=.004$ ) after the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positive effects of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on first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as a subject would be an efficient way for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nd I recommend that various professor teaching method and nursing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with utilizing ICT.

## 키워드

Freshman, Nursing Introduction Education, Content,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신입생,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jskim-98@hanmail.net)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sjhan@konyang.ac.kr)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hankgb@hanmail.net)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동강대학교 간호학과(wuhibbukav@naver.com)

접수일자 : 2013. 12. 17

심사(수정)일자 : 2014. 02. 25

게재확정일자 : 2014. 03. 1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환경내에서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화두는 취업에 관한 것이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미래의 자신의 직업을 고민하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경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나 진로선택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과 ICT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 하는 신입생에게 학과 입문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향후 직업생활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어 진로 결정과 진로 준비 행동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즉, 졸업 후 다양한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아개념의 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입생을 위한 학과입문교육 콘텐츠는 학과의 특성을 보다 쉽고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직업 활동과 역할을 확보해 나가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간호학 분야는 의료영역이라는 특수성과 간호사 수요 증가에 따른 직업 획득의 용이성 등으로 학과 지원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 이후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나 여유 없이 상황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시기에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직업 세계의 다양화와 전문화, 첨단 과학 분야의 급속한 발달, 계속되는 학문의 분화와 융합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진로 상담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2].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어 취업 후에도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공 관련 학업,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학생에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라는 형식적인 틀 속에서 정해진 학습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부모와 교사 등 주변의 기대나 압력에 의해 학습동기를 유지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는 성인으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동기를 확립해야 하고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야 하는 발달적 단계에 있게 된다[3]. 대학생의 학습발달과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습동기를 자기주도적으로 확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학생들의 학업관련 동기조절 전략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다[3-4], [5]. 이런 관점에서 대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최소화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수자의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에서 간호학 관련 학과입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보고가 없고, 더불어 학과입문교육을 실시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선택에 대한 보탬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더 나아가 그 효과를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입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ICT 융합화와 U-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연구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한 후 간호입문교육 콘텐츠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이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학과입문

입문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배우는 길에 처음 들어섬’ 또는 ‘어떤 학문의 길에 처음 들어섬’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과 간호학과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경험을 본 연구에서는 학과입문이라고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신입생의 대학입문은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으로서의 입문 과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6]. 대학에서 어떤 학문을 선택한다는 것과 일정기간 선택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간호학은 실천학문이며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강의와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임상실습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이론은 물론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학생 또한 타 학과보다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고, 실습으로 인해 단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학생의 학과 적응경험을 근거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간호학과 학생들의 적응 초기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몫’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적응 후기에는 내면화된 자신의 이상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당연히 겪어야 할 몫’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7].

간호학과 신입생은 전공교육을 시작하면서 기대감, 생소함과 흥미로움 등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 후 학습을 계속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에 대한 뿌듯함과 타 전공과 비교하여 많을 것을 배우는 간호학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학습량의 과다와 암기 위주의 학습 내용과 간호학 학문의 추상성이나 전공서적이나

평가에 대한 부적절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도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습득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타 전공인 유아교육학과에의 경우에 입문하면서 학생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고등학교와 다른 자유를 경험하지만 스스로 조절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불완전한 전이 과정을 거치고, 전공에 입문하면서는 자신이 자질이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경험을 하면서 친구, 선후배, 교수와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다져가 자기주체성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처럼 간호학과에 입문한 학생들도 같은 형태의 경험과 갈등을 거치면서 전공에 대한 학과적응, 교우관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간호학과에의 적응이 간호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을 반영한 다양한 중재와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간호학 학문의 길에 처음 들어서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 2.2.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에 대한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독립적이며 확고한 진로태도의 발달을 의미한다. 즉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적인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판단능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와 열정,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성취감과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10].

개인이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과정을 통해 변화, 발달해 가는 발달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 중 대학생의 시기는 진로태도성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개인적 진로의 사결정과 계획에 있어서 체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1].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 결정여부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선택과 그에 따른 학업의 방

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대학생활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직전에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등에 대한 고민들로 학업이나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졸업과 동시에 병원 현장에서 바로 일할 기회가 많은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이념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바람직한 간호상의 부재시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12]. 특히 또한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식과 자질의 결여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거나 적응 결여의 문제등을 일으켜 결국 이직율을 높게 된다[12-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자원 및 행동절차를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이라고 하였다[14]. 즉,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다[15].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수행을 매개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14]. 또한 특정 학문분야, 전공 및 선택 그리고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학업적 능력을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전공학업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것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많으며 진로목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요인이 된다[16]. 본 연구에서는 학과입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 2.4.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개발과정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

월까지 4개월에 걸쳐 개발하였다. 내용구성을 위해 2명의 간호학과 교수가 준비위원이 되었다. 간호학생들을 10년 이상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을 준비위원으로 하였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동기부여와 흥미를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태라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문제를 사전에 조사하여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준비 위원회는 바로 위 학년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일 때 어떤 점들이 궁금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매년 입시상담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공 관련 질문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8-9]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전공교육에 입문할 때의 경험 구조를 파악하여 교육내용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긍정과 부정의 경험을 학생들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간호학과 전공 교과목 중에 전공입문 과목인 간호학개론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으며, 간호학문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전공에 관심과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내용의 최종안을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011년 개발 후 변경 없이 2012년에도 같은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적용하였다.

### 2.5.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구성 및 적용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과입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4주간 1학점이 부여된 필수 교육과정이다. 이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학과 4학년 과정동안의 전공 교과목을 이해하고 학문 분야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이해하여 신입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시간은 900분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콘텐츠의 구성 틀은 인간, 건강, 환경과 간호라는 간호의 4개 메타 패러다임으로 하였으며[17], 인간을 성장발달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생아, 아동(청소년), 성인, 여성, 노인으로 세분화하였고, 건강에서는 급성기와 만성기로 구분하였다. 환경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로 확대하였고, 간호는 기본간호와 전문 간호를 구분

하여 적용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 후에 학과 적응을 위한 학과 분위기, 전공의 이해(수업과 과제), 인간관계와 진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구성된 학과입문교육 내용의 적용을 위해 4주 동안 매회 주제에 따라 관련 전공교수가 참여하였고, 강의, 시범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강의의 큰 주제는 주차별 주제에 맞추었으며, 하위 영역에 학생들에게 선배 간호사와 교수의 입장에서 ‘나의 간호대학 생활’이라는 주제를 두어 학과 적응과 진로 탐색의 노하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매회 학습내용은 워크북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에 대한 성적 여부는 포트폴리오 기록 및 소감을 참고하여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처리하였다.

표 1.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Table 1. Contents of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Session	Methods	Domain	Sub domain	Content	Duration (min)
1	Lecture	Orientation	Introduction	Introduction & orientation	50
2	Lecture	Human	Woman	Woman Nursing's concepts & historical background	200
			Child	Newborn, child, and Adolescence's norm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nursing	
			Elderly	Elderly's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tasks, health problems, and nursing	
			Adult	Adult's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tasks, health problems, and nursing	
3	Lecture	Health	Acute disease	Acute diseas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100
			Chronic disease	Chronic diseas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4	Lecture and field trip	Nursing	Basic nursing	Infection control : hand washing	100
			Specialty	Professional Nurse	

5	Lecture	Environment	Hospital	Outpatient, ward, special unit	200
			Committee	Nursing committee and organization in world	
			Nurse	Nurse's role and view	
			Community	Community nursing	
6	Demonstration, Lecture		Attitude & communication	Nursing etiquett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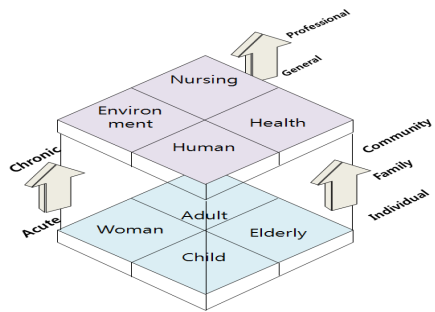


그림 1. 콘텐츠 개념틀  
Fig. 1 Content frame

### III. 연구방법

####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에 의한 원시실험연구이다.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간호입문교육 콘텐츠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은 2012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학과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로 이루어졌다. 간호입문교육 동안에는 정규 학과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는 교양강좌, 유명인 초청 특강과 봉사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중 학과 차원에서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과에 입문하는 신입생들에게 진로와 학업을 위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다. 4주 동

안의 교육이 끝나면 곧 바로 정규 학사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동일한 경험을 하는 4주간의 교육이 끝나는 시점을 교육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 3.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지방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9명이었다.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단일군 실험설계연구에서 평균비교 분석에 사용될 적정 표본크기 계산 결과, 효과크기 0.5, 검정력 0.80,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의 수는 34명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 129명은 충분한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은 실험 전후에 변화가 없었고, 실험 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은 16명(12.4%), 여학생은 113명(87.6%)으로 더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18.4세로 최저 18세에서 최고 21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7.3%(61명)이었으며, 있는 경우는 기독교가 34.9%(45명)로 가장 많았다.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이 맞아서 선택한 경우가 47.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률이 높아서 선택한 경우가 35.7%(46명), 학교 성적 17.0%(22명)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은 정시 83명(64.3%), 수시 40명(31.0%), 정원외(농어촌전형) 6명(4.7%)으로 나타났다.

### 3.3.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학과입문교육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자발적인 참여, 참여자를 위한 비밀보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교과목 수강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자필 동의를 받은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입생 12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단일군 사전-사후 연구 설계의 특성상 유기명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알렸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 종료 후에는 설문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문지를 회수용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29)

Characteristics	n	%	M±SD
<b>Gender</b>			
Male	16	12.4	
Female	113	87.6	
Age(yr)			18.44±.67
<b>Religion</b>			
Christian	45	34.9	
Catholic	17	13.2	
Buddhism	6	4.7	
None	61	47.3	
<b>Reason to choose nursing</b>			
Academic performance	22	17.0	
Eptitude	61	47.3	
Easiness to get a job	46	35.7	
<b>Matriculation kind</b>			
Regular admissions	83	64.3	
Early admissions	40	31.0	
Supernumerary admissions	6	4.7	

### 3.4. 연구도구

#### 3.4.1.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한종철과 이기학(1997)의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연구[18]에서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정희영과 박옥련(2009)이 대학생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15]. 정희영과 박옥련(200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이며 [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5$  이었다.

진로태도성숙의 문항은 26문항으로 구성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한다, 비록 내 적성에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인이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 단계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로계획, 결정 및 행동을 하

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이 도달한 수준을 알아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구는 목적성,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준비성의 하위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문항은 역산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4.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김상진(2007)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19]. 김상진(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1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이 도구는 나는 처음에는 일을 잘 하지 못해도 끝마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경우, 처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기술통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진로태도성숙과 자아효능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진로선택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과 ICT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신입생에게 학과 입문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위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적용하여, 교과목으로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가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교과목으로서 학과입문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학과입문교육 콘텐츠의 구성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태도, 학습 분위기와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후속연구와 간호입문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은 표 3과 같다. 진로태도성숙은 5점 만점에 최대 4.46점, 최소 2.85점, 평균 3.63±.34점이며,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최대 5.00점, 최소 2.50점, 평균 3.84±.50점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 정도  
Table 3.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N=129)				
Variables	Min.	Max.	Mean	SD
Career attitude maturity	2.85	4.46	3.63	0.34
Self-efficacy	2.50	5.00	3.84	0.50

**4.2.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의 진로태도성숙**

연구대상자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의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은 교육 전 3.63±.34점에서 교육 후 3.71±.37점으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92, p=.004).

표 4.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전·후의 진로태도성숙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cores between the pre and post test

(N=129)				
Variable	Before	After	Difference (After-Before)	t(p)
	Mean±SD	Mean±SD	Mean±SD	
Career attitude maturity	3.63±.34	3.71±.37	.08±.35	2.92(.004)

### 4.3.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은 .609 ( $p<.001$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5.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Variable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1	.609**(<.001)
Self-efficacy	.609**(<.001)	1

\*\*  $p<.01$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ICT 융합화와 U-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과 입문을 위한 교과목으로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적용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서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추어서 선택하였다가 47.3%, 취업이 용이해서가 35.7%로 나타났다. 박순주(201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0%가 취업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하였고 [1], 고영지와 김인경(2011)의 연구에서는 49.2%가 취업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해서[20]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사회 전반의 취업난이 간호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한 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t=2.92, p=.004$ ). 진로태도성숙은 5점 척도에서  $M=3.63$ 점이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연구한 권혜진 외(2009)의  $M=3.6$ 점[21]과 김명아 외(2004)의  $M=3.58$ 점[11]과 유사하였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후에는  $M=3.71$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은 전공 선택 확신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전공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 결정에 확신을 갖는 학생들은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본 연구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전공에 대한 소개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자신이 선택한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된 점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데, 특히 학과의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 전공도서의 가치,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 학과의 가치 및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큰 관련성이 있다[22]. 그러므로 학과입문교육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해 지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23].

둘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t=2.36, p=.002$ ).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에서  $M=3.84$ 점이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M=3.58$ 점[24]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의  $M=3.25$ 점[3]보다 다소 높았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후에는  $M=3.92$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전후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렵지만, 이성희(2006)는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24].

Abbitt와 Klett(2007)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보다는 기술의 통합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더 많이 높인다고 하였다[25].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가 간호학 전공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세부 전공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대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아버지와 친구/애인의 지지는 학문적/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버지와 친구/애인의 지지 만큼의 효과는 아니었지만, 교수의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6]. 그러므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모든 긍정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교수로부터 관심, 애정과 신뢰의 행위를 포함하는 지지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는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활 적응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3], [27]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과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3], 그리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5]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의 적응,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에 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실시 후 자기효능감의 의미 있는 상승은 향후 대학생활의 적응과 나아가서는 학업성취와 진로성숙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송미(2005)와 일치하였다[28].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 특성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적용 후 학생들의 반응은 '진

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막연히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다.',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전공에 대한 안내를 해주니까 전공 교수님을 1학년 때부터 뵈게 되어 친근감이 생겼고 소속감도 생기게 되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내가 희망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다른 수업 없이 학과에 입문하도록 도와주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등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교과목으로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지영(2005)은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의 개설 현황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신입생의 대학생활을 돕고 전공 진입에 앞서 전공을 소개하려는 목적인 경우에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신입생과 교수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형성에 필요한 재정적 보조나 교내기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 시 가장 고려할 점은 체계적이고 적절한 수업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9]. 문옥곤과 김정자(2013)의 연구에서는 영화를 활용해서 수업 콘텐츠의 효과[30], 이해정, 이정자와 정석태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초등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31], 박진우(2011)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정책 전달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된바[32]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화,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한 간호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전공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지금의 필수과목 형태로 개설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 그룹 토의나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 규모나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관찰할 수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간호학과 정규교과과정의 개선활동으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S. Park,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2012, pp. 259-267.
- [2] H. Gu and H. Park,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Korea J. of Counseling*, vol. 6, no. 2, 2005, pp. 373-385.
- [3] S.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2011, pp. 235-253.
- [4] M. Dinther, F. Dochy, and M. Segers, "Factors affecting students' self-efficacy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Review*, vol. 6, 2011, pp. 95-108.
- [5] J. S. Eccles and A. Wigfield, "Motivation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2002, pp. 109-132.
- [6] H. Ryu, "Meaning of induction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reshmen at three year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8.
- [7] S.-Y. Min,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4, 2006, pp. 409-419.
- [8] K.-H. Jo and Y. Cho, "The study of an entrance experience into major subject of a student nurse,"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2001, pp. 360-368.
- [9] H. Ryu and H. Cho, "Meaning of induction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reshmen at the at three year college," *J.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3, no. 3, 2006, pp. 249-276.
- [10] K.-H. Lee and J.-C.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0, no. 1, 1998, pp. 167-189.
- [11] M. Kim, J. Lim, S. Kim, E.-J. Kim, J. Lee, and Y. Ko,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3, no. 4, 2004, pp. 383-391.
- [12] K. Bang and J. Cho,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2006, pp. 88-97.
- [13] Y. Kwon and E.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2007, pp. 285-292.
- [1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1977, pp. 191-215.
- [15] H. Jeong and O. Park, "Effect of self efficacy in college students majored in beauty art on the career maturity level," *J. of Korean Society Cosmetics*, vol. 15, no. 4, 2009, pp. 1363-1371.
- [16] M. Cheong, S. Park, and G. Shin, "The path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 J. of Counselling*, vol. 5, no. 1, 2004, pp. 95-111.
- [17] S. Lee, *Understanding of nursing theory*. Soomoonsa, 2009, pp. 32-33.
- [18] J. Han and K. Lee,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The J.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8, 1997, pp. 219-255.
- [19] S.-J. Kim,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2007.
- [20] Y. Ko and I.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2011, pp. 62-71.
- [21] H. Kwon, B. Kim, S. Kim, S. Kim, J. Sung, Y. Shin, K. Yi, S. Yoon, and Y. Hong, "A stud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th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Ewha Nursing Research*, vol. 43, 2009, pp. 41-50.
- [22] S. Kang, "Relationships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isheries And Sciences Education Research*, vol. 22, no. 2, 2010,

pp. 151-164.

- [23] S.-C. Jang,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3.
- [24] S.-H. Lee,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 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2, no. 1, 2006, pp. 5-12.
- [25] J. T. Abbitt and M. D. Klett, "Identifying influences 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beliefs towards technology integration among pre-service teachers," *Electronic J. for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in Education*, vol. 6, 2007, pp. 28-42.
- [26] H. Park and K. Kim,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Bulletin of Keimyung University*, vol. 19, 2001, pp. 7-23.
- [27] J. Ha and I. Han,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J. of Counseling*, vol. 7, no. 2, 2006, pp. 595-611.
- [28]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the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05.
- [29] J. Yi, "A study on the operation of freshman Seminars and its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 [30] O.-K. Moon and J.-J. Kim, "Effect of clinical kinesiology class contents by utilizing movie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8, no. 9, 2013, pp. 1421-1426.
- [31] H.-J. Lee, J.-J. Lee, and S.-T. Jung,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computer education based on smart phon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3, no. 5, 2013, pp. 687-693.
- [32] J.-W. Park,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Communication for People through Smart Phon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11, no. 8, 2011, pp. 465-471.

## 저자 소개



### 김자숙(Ja-Sook Kim)

2002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간호학사)

2012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석사)

2014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5학기

2013년~현재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학, 간호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뮬레이션, 지역사회간호학



### 한수정(Su-Jeong Han)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졸업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석사)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박사)

1997년~현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간호교육 콘텐츠개발,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행정



### 한승욱(Seung-Wook Han)

2006년 대구교육대학교 졸업(교육학사)

2010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2012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2013년~현재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군산간호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출강

※ 관심분야 : 교육과정, 교수설계, 교육방법, 다문화교육 등



**김수현(Su-Hyun Kim)**

2002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  
학과 졸업(간호학사)

2002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  
학과 졸업(간호학석사)

2014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3학기

※ 관심분야 : 모성간호학, 시뮬레이션, 중환자간호